『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17
pp.285-301 ISSN : 1229-9618

한한령(限韩令)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 사회관계망분석(SNA) 연구*

주민욱**

【목 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측정방법
2. 이론적 논의
  1) 한류문화의 등장과 혐한류 현상
  2)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
3. 중국 언론보도 실증분석
  1) 한한령 언론보도 기초분석
  2) 한한령 언론보도 SNA 분석
  3) 분석결과에 대한 소결
4. 결론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논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시행을 살피기 위해 사회관계망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연스레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한령에 대한 중국측 태도를 구체화 하는 것에 있다. 한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한령 시행에 대한 시각차는 양국 간 잠재적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대표 일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의 한한령 시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한한령은 물론 '제약', '한류', '사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행업'이 대표적이었다.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보도에서는 한중 양국은 물론 한한령 시행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이로 인한 영향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중국 언론보도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품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비록 중국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이 관계가 없다지만, 본 논문은 이 두 요인 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중국, 한한령, 사드, 사회관계망분석, 중국 언론보도

---

* 이 논문은 2017년도 6월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당시 토론자 및 참석자분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jjoo9993@hotmail.com)

1. 서론

1) 연구목적

한중 간 국교 수립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학술, 문화예술, 인적 등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음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 동안 단절되어 있어서 갈증으로만 남아 있었던 양국에 대한 호기심과 그 필요성이 짧은 기간 내 해소되는 경험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교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대(对)중국 한류(韩流)문화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2000년 전후 중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 복장,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중국문화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과거 불교와 유교가 한국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현재는 오히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민의 문화현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文正九·吴莲姬, 2001). 하지만 현재 중국 내 한류 문화현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혐한감정(嫌韓情绪)[1]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산, 그 농도 역시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반감을 시작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문화, 디지털 컨텐츠, 관광, 의류, 미용, 의료, 더 다아가 대(对)중국 무역산업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 내 확산되고 있는 혐한류(嫌韓流) 정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일기 시작한 혐한류 정서와 그 모양새는 유사하나 그 성격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류에 대한 저항의 근거와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여년 전 혐한 감정은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현상에 대한 불만이 접목되어 있었다(李英珠·郑寅淑, 2009). 당시 강릉단오제의 세계문화 등재, 동북공정 및 고구려 역사문제, 백두산 영토문제 모두 양국의 역사와 문화상의 갈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간 역사, 문화 충돌이 중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 내 지나친 한류현상의 확산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혐한류 정서가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반면 지금의 혐한정서는 특정 사건, 즉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崔永杰, 2016; 祁昊天, 2016). 이와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한한령 시행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예전 중국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던 한류문화에 대한 정책적 제재조치와는 다르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 시행을 부정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민의 자발적 혐한정서의 일환으로써 한한령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한국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제재조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지 않는 중국정부의 손이 어느 때보다 뚜렷해 보이는 지금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중국정부의 한한령 시행을 구체화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공식적으로 한한령 시행을 부정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 노출된 한한령 시행의 내용들을 살피면 중국정

1) 한국에서는 중국민의 한국문화에 대한 반감을 반한정서(反韩情绪)로 표현하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혐한정서(嫌韓情绪)로 지칭하여 부른다. 또한 이를 반한류(反韩流) 또는 항한류(抗韩流)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쓰임의 보편성을 따지자면 혐한류(嫌韓流)가 더 적확한 표현이다.

부와의 상호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언론보도에서 한한령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도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요 공산당 기관보(机关报)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내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 시행과 중국의 입장을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즉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2] 우선적으로 현재 동아시아 안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실제 이와 관계된 중국보도를 분석하여 관련 기초통계 분석과 SNA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한령 관련 중국의 신문보도를 내용분석하기 위해 사회관계망분석(社会网络分析) 방법을 채택하였다. 중국에서 역시 SNA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어져 왔으며(王运锋 外 2, 2008), 현재는 온라인상의 대인관계(人际关系)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써 SNA가 활용되어 지고 있다(黎加厚 外 2, 2007). 무엇보다 중국 우한대학교(武汉大学) 선양(沈阳) 교수팀에 의해 개발된 프리소프트웨어 'ROST CM6'는 중국 내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중국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SNA 분석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3] 실제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신문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주민욱(2016b)은 SNA를 활용하여 중국 신문보도를 대상으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 역시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국가체면(national face) 훼손 현상을 실증분석 하였다(주민욱, 2017).

(1) 측정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신문을 선택하였다. 신문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중국 내 인지도'와 '중국정부와의 관계'였다. 이를 근거로 중국 기관지(机关报)이면서 중국인

---

2) 신문 내용분석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질적 요인까지를 포함한 내용분석 보다는 철저하게 객관적 수치만을 통한 사회관계망 분석법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와 한한령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데, 본 연구는 중국의 관영 신문사들의 신문내용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 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ROST CM6는 프리 소프트웨어로써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해당 언어자료들을 정리하여 실행하면, 자동으로 단어별, 단어 간 빈도 및 연결 정도 등을 산출해 낸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상위 몇 번째까지 혹은 특정 단어만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분석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ROST CM6은 연구자의 개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단 이 소프트웨어는 중국어와 영어 언어자료만을 분석할 수 있다.

에게 인지도가 높은 신문 '인민일보(人民日报)', '환구시보(环球时报)', '참고소식(参考消息)' 그리고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를 선택하였다[4]. 분석기간은 중국 신문보도에서 한한령 단어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8월 3일부터 실제 분석이 실시되기 전인 2017년 4월 25일까지로 두었다.[5] 기사검색은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baidu)와 각 신문사에서 진행하였고, 무엇보다 중복된 기사에 신경을 쓰며 자료수집 하였다.[6] 이와 더불어 인용기사의 경우 최초의 기사작성 신문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최종 선택하였다.[7]

(2) 측정방법

측정방법에 있어 우선적으로 표집된 전체 기사를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이들을 ROST CM6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였다. 신문사 간 구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중국 기관보들에서 작성된 신문기사 간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분석에서 신문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신문 상호 간 차이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는 상호 신문 간 보도기사 내용이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중국의 주요 공산당보(党报)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문 간 기사 수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논조에 있어서는 상호 간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주민욱, 2016b).

실제 분석에서는 표집된 전체 기사에 대한 고빈도 분석(词频分析)을 실시하였다. SNA의 경우 ROST CM6 안에 연동된 NetDra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으로 구분된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를 시각화하였고, 이어서 한한령 단어를 중심으로 어떠한 단어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논의

1) 한류문화의 등장과 혐한류 현상

한중 양국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양국은 긴 시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광범위한 상호 교류를 이어

---

4)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 신문, 환구시보는 인민일보사 신문업집단의 가장 저명 있는 자(子)신문이다. 참고소식은 신화통신사가 주관이 되는 중국 내 발행량이 가장 많은 일간지이며, 중국청년보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의 기관지로써, 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中国共产党中央宣传部)가 직접 관할하는 중국정부의 최고기관급 일간지 중 하나이다.

5) 중국에서는 한류금지령을 금한령(禁韩令)이라고도 명명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사용형태이며, 그 쓰임이 한한령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쓰이는 '한한령'과 달리 '중국금한령'과 같이 중국이 덧붙여진 형태로 쓰여 지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금지한다(禁)' 보다는 '제한한다(限)'는 표현이 한류에 대한 제제조치를 더욱 쉽게 나타내고, 오해의 여지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전략적 표현이다.

6) 각 신문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총 데이터 수는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7) 한한령(限韩令), 한령(韩令), 한류(韩流), 사드(萨德) 등을 검색어로 각각 세부검색을 진행하였다.

왔다. 특히 양국은 한자문화권(汉字文化圈), 유교사상(儒教思想)과 불교문화(佛教文化)를 기반으로 상호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해 올 수 있었다. 자연스레 양국의 전통문화는 서로의 국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동시에 비교적 쉽게 상대 국가에 녹아들 수 있었다(文正九·吴莲姬, 2001). 1945년 광복 이후, 세계패권이 냉전체제로 양분된 시점에서 한중 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교류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절은 양국민 간 각종 교류와 상호 이해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무엇보다 동양의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왔다. 시간이 흘러 반세기가 다되어서야 비로소 상호 단절되었던 문화, 인적교류는 다시금 현실화 될 수 있었다. 1992년 8월 한중 양국 간 국교를 수립한 이래, 1994년 3월 양국은 문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호 간 문화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었다(牛汉杰, 2015).

중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류 문화산업 현상을 살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0달러의 문화산업 수입(进口)이 400달러의 경제적 수익(收益)으로 나타난다는 공식을 빗겨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쉬쟈오린·푸종언(徐照林·朴钟恩, 2014)은 2014년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来自星星的你)'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크게는 400배 이상의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현상, 즉 한국문화가 대(对) 중국 무역의 한국산 일반상품에도 영향을 주어 기대이상의 무역차익을 가져오게 했다. 단순히 한국산 제품의 질적 우수함, 가성비만이 아닌 무엇보다 문화영향력(文化影响力) 요인이 대(对) 중국 상품무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류와 여행산업 간 영향관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金亨根, 2009). 중국인이 한국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에 빠져들수록 한류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 하에서 점차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 한류는 한국 여행업에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한중 여행업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류로 인한 긍정적 요인만큼 이에 대한 혐한(嫌韓) 현상도 점차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 혐한류 현상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한중 양국 모두 이를 주목해 오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오랜 기간 환영을 받아왔으며, 한국의 대중가요 역시 한류현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한 한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던 이들이 점차 한류의 영역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각국에서는 자기 나름의 방식과 서로 다른 정도로 항한류(抗韩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李英珠·郑寅淑, 2009).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횟수와 방송시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한국산 문화 컨텐츠의 수입에 있어서도 정책적 차원의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혐한정서는 상당부분 양국 간 역사적 충돌문제에 기인하고 있다(路博阳, 2014). 2005년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등재, 2006년 중국 전통의학(中医)이 아닌 한의학(韩医) 세계유산 등재신청, 2009년 한국 학자에 의해 제기된 신농씨(神农氏)와 이시잔(李时珍)이 고려인이라는 가설 모두 중국인을 격분케 했던 대표적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들

모두 중국 내 학자들을 비롯하여 일반 중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 역사문화 유산을 도둑질해 간 한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한류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한중 간 역사문제에서 중국인들의 손상(伤害) 받은 감정(感情)이 그대로 한류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이전(转移)된 것이다. 이를 결과적으로만 살핀다면,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에 저항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사드 전략체계가 주변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胡海洋, 2016).

2)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

미국은 공식적으로 여타의 국가에 대한 사드배치가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지역성이 아닌 글로벌(全球性)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해외 군사기지 보호 및 동맥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 혹은 대륙 간 탄도마사일의 위협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드배치 국가는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이들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郭衍莹, 2015a). 이에 덧붙여 중국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 초기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불만 제기에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기보다는 자체적 연구계발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을 향한 사드배치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근 미래에 한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郭衍莹, 2015b). 사드배치 논의초기, 2014년 11월 26일 주한 중국대사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이로 인해 한중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16년에 들어서 한반도 내 사드배치라는 한중관계 악화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하다. 중국의 국가이익(国家利益)이 상당히 침해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욱(2016b)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주요 기관보를 대상으로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자국의 국가이익, 즉 국가안보(国家安全)가 상당 부분 침해 받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사드 체계 내에서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는 중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노출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실제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에서 사드의 레이더 성능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쉽게 살필 수 있다. 후하이양(胡海洋, 2016)은 사드 방어체계의 레이다 감시 범위는 넓게는 2000km에 달할 것이며, 이는 중국 대부분의 대륙과 영해는 물론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표면상 대(对)북한 핵억제 차원에서 진행된다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 안보이익(安全利益)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郑兆岚, 2016). 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반도 내 긴장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핵유도탄(核导) 실험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주변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미중러 상호 국가 간 동아시아 내 전략적 균형 상태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 내 군비경쟁(军备竞赛)이 더욱 가속화 되어 주변국가 간 갈등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崔永杰, 2016, p.21).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분명하다. 군사력은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쟈오란(郑兆岚, 2016)은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손상 받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질적인 군사위협(军事威胁)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적으로 유도탄 공격능력(导弹火力突击)을 선보이고, 유사시 운용할 수 있는 초저공 미사일 방어체계(超低空突防)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상 공중 병력(海空兵力)과 미사일 반격체계(防空反导) 간 유연한 군사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반격능력을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동아시아 내 대(对)중국 군사위협을 타파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무력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이 없다지만,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경제보복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리종쉰(李宗勋, 2016)은 한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제재(经济制裁)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을 보다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 한중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자국의 손해를 감수 하더라도 한국 또는 한국기업 및 한국인에 대한 경제보복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대표적 경제보복은 한류문화에 대한 제재조치, 즉 한한령의 시행이다. 딩루뱌오 외(丁鲁彪 外 3, 2017)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상의 보복조치가 세 가지 한국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한령이 존재한다. 중국의 한한령 시행으로 중국 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娱乐业)이 위축되어 기존 한류 열풍이 잠잠해 질 것이고, 자연스레 한국의 여행업(旅游业) 그리고 제조업(制造业), 특히 화장품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실제 중국 방송업계는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한한령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중국 내 일부 지역 방송국에서는 일찍이 정부 관련 기관의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제작 회사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공식 문서를 통해 금지령(禁令)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내 방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미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지한 상태이다.'
>
> '有报道援引消息人士的话说，已有地方电视台收到管理部门官员的相关口头指示，还有娱乐制作公司表示，虽然尚未接到书面禁令，但它们对韩国娱乐节目在华推广的前景很不看好，已经停接涉及韩剧的业务。'[8]

8) "首尔应为韩剧韩星在中国受阻负责(서울(한국정부) 한국 드라마 주인공의 중국 내 불이익에 대한 책

과거 혐한류 현상이 무문별한 한국 문화의 중국유입에 대한 우려에서 나타난 자발적 저항의 한 형태라면, 한한령은 이와 달리 중국 민중의 한국에 대한 반감을 매개로 중국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여론몰이 성격이 강하다.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내 수익활동 제한을 통해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보복조치를 대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한국 경제산업의 대(對)중국 무역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로 확장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contents) 수출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9]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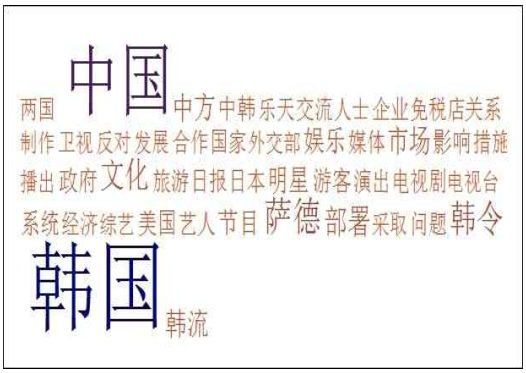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시행에 대한 생각을 읽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 연구방법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기법(network text analysis method)으로써 중국어 분석을 위한 SNA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비롯한 주요 네 신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도기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사 구성요소 중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내용분석에 활용된 중국 보도기사는 총 154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인민일보 23건, 환구일보 57건, 참고소식 26건 그리고 중국청년보 48건이었다. 분석에 활용된 총 단어 수는 기사제목 823개, 기사내용은 17,283개였다.

1) 한한령 언론보도 기초분석

<그림3-1> 중국 언론보도 제목/내용 고빈도 용어

<기사제목>

<기사내용>



임감 있어야)", 环球时报, 2016.08.05.

9) "중국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한한령(限韩令)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2017.03.01.

한한령(限韩令)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한한령(限韩令), 한국(韩国), 중국(中国), 사드(萨德) 그리고 영향(影响)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중국측(中方), 한중(中韩) 배치(部署), 시장(市场), 문화(文化) 그리고 한류(韩流) 등의 단어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한한령 시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보도에서는 한중 양국은 물론 한한령 시행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이로 인한 영향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관련 보도기사의 '기사제목'과 '기사내용' 간 고빈도 등장 단어들에서 상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제목에서는 무엇보다 한한령을 강조하고 있으며, 뒤이어 한국, 중국, 사드배치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기사내용에서는 한중 양국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한한령, 사드배치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등장하는 단어들에서도 상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제목에서는 영향(影响), 봉쇄/금지(封杀), 격상(升级), 취소(取消), 우려(优虑), 금지/불허(禁止), 폭로(曝光) 그리고 연예인 이름(송중기, 황치열) 등의 다소 선정적이거나 흥미요소의 단어들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기사내용에서는 양국(两国), 관계(关系), 시장(市场), 기업(企业), 문화(文化), 여행객(旅游客), 경제(经济), 미국(美国), 문제(问题) 그리고 조치(采取) 등의 한한령 시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에 따른 중국의 조치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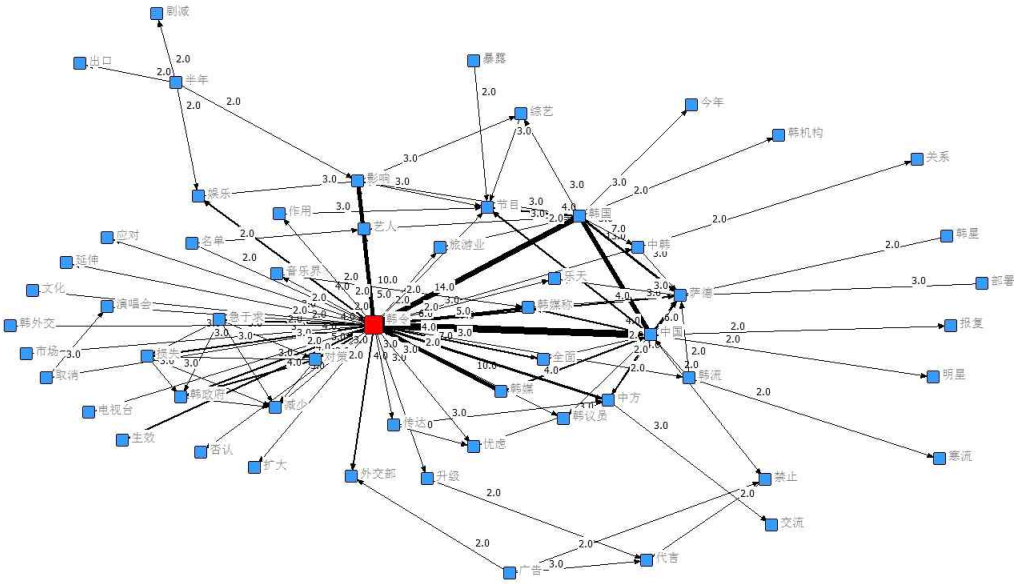
2) 한한령 언론보도 SNA 분석

(1) 한한령 보도기사 SN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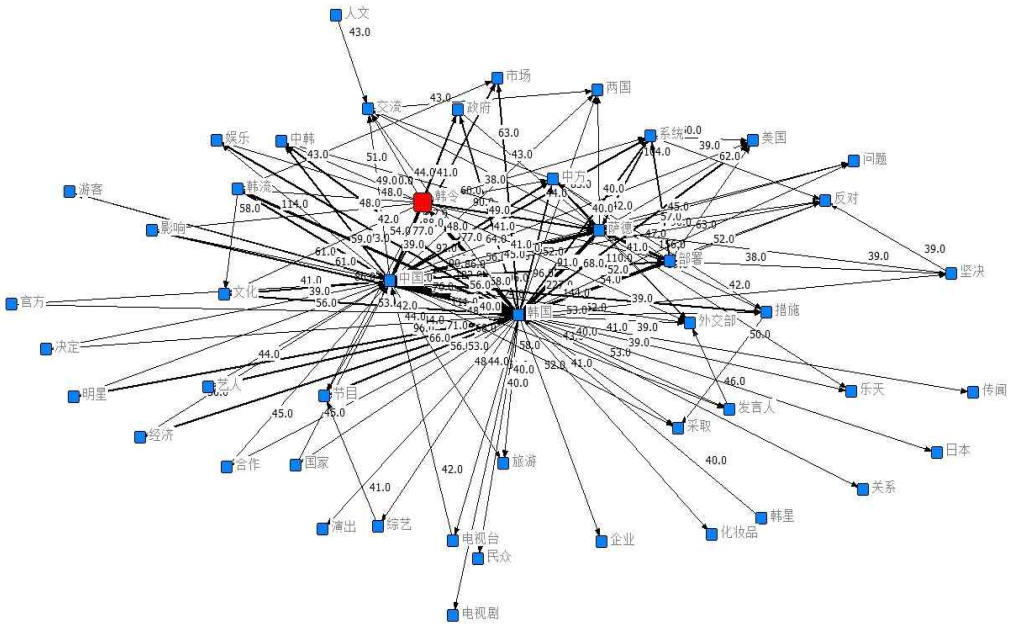
먼저 중국 한한령 관련 언론보도의 기사제목에서의 단어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한령을 중심으로 이와 밀접하게 관계된 한국, 중국, 사드, 연예인 등이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한령의 제한 대상이 기사제목에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예·오락, 버라이어티, 연예인 그리고 음악계 등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한한령-여행업'으로 이어지는 관계선(有关线)을 통해 한국 내 중국 여행객의 감소추세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한한령-한국정부-대응책-급우구성(急于求成)[10]-손실'로 구성된 단어 군집(群集)과 '한한령-중국-보복'으로 이어지는 관계선을 통해 중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한한령 시행으로 구체화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국-한한령-전반(全面)-한류(韩流)-한류(寒流)'로 이어지는 관계선은 한한령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 중국 내 한국 붐(boom)이 급격히 냉각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

<그림3-2> 중국 언론보도 기사제목 단어 간 MDS[11)]



<그림3-3> 중국 언론보도 기사내용 단어 간 M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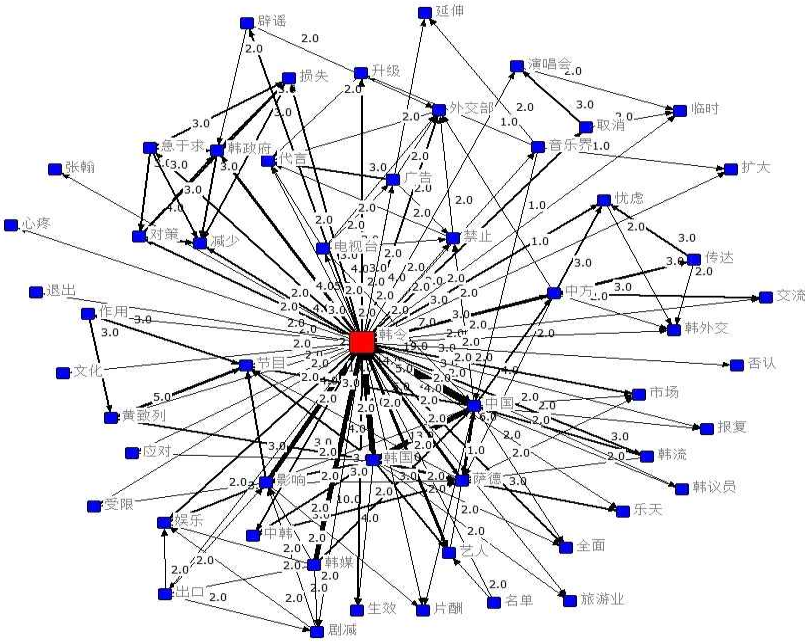
11)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은 서로 다른 개체 간 유사성을 거리로 나타낸다. 단어 간 유사성이 높으면 거리가 가깝고, 둘 간의 실선 역시 두껍게 표시된다.

앞선 중국 한한령 관련 언론보도의 기사제목 분석에 이어 기사내용의 단어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한령은 양국(韩中)은 물론, 사드배치(萨德部署), 한류문화(韩流文化)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对)중국 문화 산업/시장(市场)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사드-시스템(系统)-미국-문제-반대'로 이어지는 관계선을 통해 미국 중심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한령-중국-한국-사드-롯데(乐天)'는 롯데의 성주 사드배치 부지 제공 논의 이후에 나타난 결과로 중국의 한한령 시행이 중국 내 한국기업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는 한한령 시행이 '한국' 단어를 거쳐 '기업', '여행(업)', '화장품', '경제', '시장',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 증명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혹은 이와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들은 한한령 시행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한한령을 중심으로 한 보도기사 SN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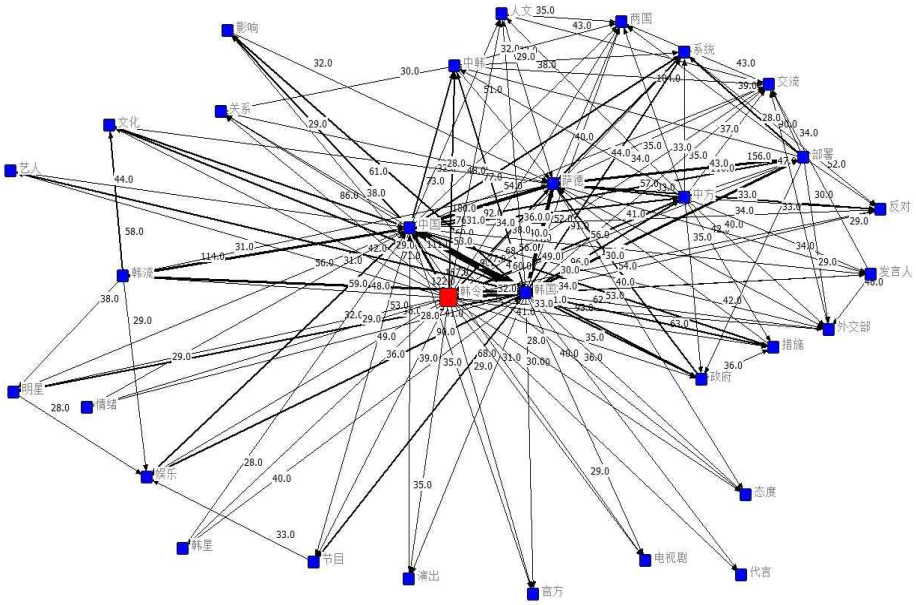
상술한 전체 분석이 고빈도 단어들 위주로 서술된 부분이라면, 여기서 한한령을 중심으로 한 단어 간 SNA 분석은 철저하게 한한령 단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한령 단어만을 그 중심에 두어 한한령 시행과 실제 어떠한 단어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도 '한한령' 단어만을 중심으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그림3-3> 한한령을 중심으로 한 기사제목 단어 간 MDS



우선 한한령 중국 보도기사의 기사제목에서 ‘한한령-한국-중국-사드’가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한령-우려(优虑)’, ‘한한령-중국-중국측(中方)-우려’ 그리고 ‘한한령-중국-보복’으로 이어지는 관계선들은 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한령임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한한령-영향’에 이어 ‘오락’, ‘프로그램(节目)’, ‘출연료(片酬)’, ‘제한(受限)’의 관계선과 ‘한한령-금지(禁止)’에 이어 ‘광고’, ‘방송국’ 그리고 ‘음악계-취소-임시(보류)-콘서트’로 이어지는 관계선은 한한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대상이 한국 문화산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한한령은 다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들, 예를 들면 ‘격감(剧减)’, ‘퇴출(退出)’, ‘격상(升级)’, ‘반박/부인(辟谣)’ 그리고 ‘보복’ 등의 단어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3-3> 한한령을 중심으로 한 기사내용 단어 간 MDS



한한령 중국 보도기사의 기사내용에서 역시 ‘한한령-한국-중국-사드’ 단어들은 상호 간 매우 높은 관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한령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사드가 함께 연계되어 있는 형세였다. 그리고 이들 네 단어들 모두 ‘영향’ 단어와 관계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드배치가 양국은 물론 이로 인한 한한령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한령 시행은 ‘한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문화’, ‘오락’ 그리고 ‘유명인(明星)’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굳이 ‘한류’ 단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한령이 ‘프로그램’, ‘드라마’, ‘한국 유명인(韩星)’, ‘예능인’, ‘공연(演出)’ 등과 연계되어져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한한령-사드’에 이은 ‘한중-관계’와 ‘양국-교류’ 관계선들을 통해 한한령 시행이 양국 간 우호적 관계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

련하여 주목할 점은 '인문(人文)' 단어의 등장인데, 여기서 인문은 학문성격의 의미이기 보다는 '문화/인적/민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한한령', '한국', '중국', '중국측' 그리고 '사드' 단어들 모두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양국-교류'와 관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사드배치로 인한 결과가 한한령 시행인가'를 물었던 중국기자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슈앙(耿爽)의 답변을 통해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12] 중국측은 여전히 한한령 시행을 부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는 중국민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감의 결과로 '민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관련 보도에서 역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결과에 대한 소결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한한령 언론보도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에서 모두 한한령(限韩令), 한국(韩国), 중국(中国) 그리고 사드(萨德)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한한령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용어/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중 기사제목에서는 무엇보다 '한한령' 반면 기사내용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을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즉 한한령과 관계된 기사제목에서는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는 사례가 많았고, 반면 기사내용에서는 이와 더불어 한한령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그 시행 주체, 한국과 중국을 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기사제목에서는 한정된 공간, 글자 수로 인해 독자들에게 모든 내용을 단번에 전달 할 수 없다. 반면 이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사내용은 임펙트 있는 단어 제시 보다는 현상에 대한 서술을 통해 사건을 진술 할 수 있다(임영호, 2005). 이로 인해 한한령 관련 중국 신문보도에서 역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한한령' 단어가 제목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사제목은 기사내용에 비해 보다 선정적이거나 흥미요소의 단어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기사구성 요소 중 기사제목의 주목효과와 관련이 깊다. 신문기사의 기사제목은 자극성을 기반으로 독자의 주목도를 높이곤 한다(주민욱, 2016a). 한한령 관련 중국 신문보도에서 역시 자극적 단어 등을 통해 중국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한령 관련 중국 기사제목에서는 봉쇄/금지(封杀), 격상(升级), 취소(取消), 우려(优虑), 금지/불허(禁止), 폭로(曝光) 그리고 연예인 이름(송중기, 황치열) 등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한한령 시행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 서술하는 기사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중국 언론보도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에 대한 단어 간 연계성을 다차원척도법을

12) "限韩令禁止电视台播韩明星代言广告?外交部否认(한한령으로 인해 TV에서의 한국 유명스타 광고출연 금지되었나? 외교부 부정)", 人民日报, 2016.11.21.

통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기사제목에서 '한한령-한국-중국-사드-연예인'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한한령-여행업'으로 이어지는 관계선(有关线)은 한한령과 중국 관광객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한령-중국-보복'으로 이어지는 관계선을 통해 중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한한령-전반(全面)-한류(韩流)-한류(寒流)'를 통해 중국 내 한국 붐(boom)이 급격히 냉각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내용에서는 한한령 관련 단어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한령은 양국(韩中), 사드배치(萨德部署), 한류문화(韩流文化) 및 대(对)중국 문화 산업/시장(市场)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국-사드-시스템(系统)-미국-문제-반대'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실현의지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한령-중국-한국-사드-롯데(乐天)'는 롯데의 성주시 사드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한령 단어는 '한국' 단어를 거쳐 '기업', '여행(업)', '화장품', '경제', '시장',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산업들 역시 한한령 시행과 무관할 수 없음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한령'을 중심단어로 두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단어들과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중국 언론보도 기사제목에서는 '한한령-한국-중국-사드'가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한한령-우려(优虑)', '한한령-중국-중국측(中方)-우려' 그리고 '한한령-중국-보복' 등을 통해 한한령과 한반도 사드배치 상호 간 관계가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한령-영향'을 거쳐 '오락', '프로그램(节目)', '출연료(片酬)', '제한(受限)' 그리고 '한한령-금지(禁止)'를 거쳐 '광고', '방송국', 덧붙여 '음악계-취소-임시(보류)-콘서트'는 한한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대상이 무엇보다 문화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밖에 기사제목에서 한한령은 다소 자극적이고 감적적인 단어들(격감(剧减), 퇴출(退出), 격상(升级), 반박/부인(辟谣), 보복)과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

중국 언론보도 기사내용에서 역시 '한한령-한국-중국-사드' 단어들은 상호 간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들 단어들 모두 '영향' 단어와 맞물려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 네 요인들 상호 간 관계성은 물론 다음의 두 가지 영향관계를 함께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한한령 시행과 '한류'는 밀접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문화', '오락' 그리고 '유명인(明星)'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밖에 한한령은 '프로그램', '드라마', '한국 유명인(韩星)', '예능인' 그리고 '공연(演出)' 등과도 밀접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측은 한한령과 한반도 사드배치가 서로 무관하며, 이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혐한정서 형성의 결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 지는 결과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경제적 제약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한령-사드'를 거쳐 '한중-관계', '양국-교류'는 한한령 시행이 양국 간 우호적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한령-한국-중국-사드' 이들 모두는 '한중-관계' 각각의 단어들과 상호 연결되어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한령 시행의 결과로써 여러 부작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중 양국 간 우호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胡海洋, 2016; 李宗勋, 2016). 이는 한반도 사드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시행과 관련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丁鲁彪 外 3, 2017, p.69).

4.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냉각된 한중 양국 관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중국의 현재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비로소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이고, 그 결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의 보도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이 연관이 없다지만,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가 분명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중국, 사드배치 그리고 한한령 요인들은 상호간 근접거리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드 체계로 중국의 국가이익은 침해를 받을 것이며, 동아시아 정세를 위태롭게 하여 동북아시아 내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거센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한 바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문화 제재조치로 이어지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중국정부의 입김이 상당함에 한국 역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지금이다.

문제는 한한령 시행이 단순하게 한국 문화산업의 중국수출 길을 막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대(対)중국 무역수출 산업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롯데기업의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두고, 이를 한국의 양면성으로 확장하여 분노하고 있다(丁鲁彪 外 3, 2017). 한국 기업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활동을 통해 이익을 챙겨 가면서, 뒤로는 중국의 안보이익(安全利益)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받고 있는 경제활동 상의 불이익의 근거를 한국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로 귀결시키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 및 한중 양국 관계가 어떠한 변화 형태를 보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한령 시행 간 관계를 중국 언론보도를 통해 증명하였음에 나름의 연구적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 대안제시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실무적 제안을 제시하여 나름의 연구공헌을 해야 했었는데, 이에 대해 미흡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확장하여 한한령 시행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보다 집중하였으면 한다.

또한 분석 기간 중 발생한 특정 사건, 예를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정부 출범 등을 전후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분석대상에 있어서도 기관지와 중국 내 공신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언론매체 상호 간 비교분석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언론보도만이 아닌 한한령 관련 연구 등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온·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나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이들 중국 언어자료에 대한 수집·분석 작업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인구 수 만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언어자

료의 규모는 상당하다. 이들 자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국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들 정제되지 않은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틀이 구체화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임영호, 『신문원론』, 한나래, 2005.

주민욱, 「중국의 한국 신문보도 인용상의 문제점 논의 — 북핵 6자회담 신문보도에 나타난 노이즈 형태를 중심으로」, 『中國學』, 제55집, 대한중국학회, 2016a.

_____, 「중국 신문보도에 나타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중국학연구』, 제78집, 2016b.

_____,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중국의 국가체면」, 『中國研究』, 제70권, 2017.

崔永杰, 「浅析萨德入韩带来的挑战及中国的应对策略(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한 도전과 중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논의)」, 『赤子』, 第20期, 2016.

丁鲁彪·刘学斌·张朋·陈包, 「萨德对中韩经济的影响(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경제 영향)」, 『经济』 第3期, 2017.

郭衍莹, 「THAAD反导系统的威慑作用和潜在威胁(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위협작용과 잠재적 위협)」, 『现代军事』 第3期, 2015a.

_____, 「萨德系统暗藏杀机逼近中俄(중러에 근접하고 있는 사드 체계 내면의 숨겨진 살기)」, 『科学大观园』 第3期, 2015b, pp.38-41.

胡海洋, 「论全球治理过程中面临的挑战-从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谈起(글로벌 정치과정 중 직면한 도전에 관한 논의-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长春教育学院学报』, 第32卷 第12期, 2016.

金亨根, 「韩流对中韩两国旅游经济的影响(한류가 한중 양국 여행경제에 미치는 영향)」, 『当代经济月刊』, 第11期, 2007.

李英珠·郑寅淑, 「中国抵抗韩流现象研究-兼议建立积极的文化交流策略(중국의 한류 저항 현상 연구-적극적 문화교류 전략을 위한 논의)」, 『南方电视学刊』, 第4期, 2009.

李宗勋, 「萨德入韩经纬与中韩关系(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경위와 한중관계)」, 『延边大学学报』, 第49卷 第5期, 2016.

黎加厚·赵怡·王珏, 「网络时代教育传播学研究的新方法: 社会网络分析—以苏州教育博客学习发展共同体为例(인터넷 시대 교육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 사회네트워크분석)」, 『电化教育研究』, 第8期(总第 172期), 2007.

路博阳, 「浅谈中韩文化冲突(한중 문화충돌에 관한 논의)」, 『创新科技』, 第10期, 2014.

牛汉杰, 「中韩文化贸易发展现状及对策分析(한중 문화무역 발전 현황 및 대책 분석연구)」, 『经济师』, 第11期, 2015.

祁昊天, 「萨德入韩与美国亚太反导布局的战术与战略考量(한국 내 사드배치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미사일 방어체계 포석 및 전략에 관한 논의)」, 『现代国际关系』, 第7期, 2016.

王运锋·夏德宏·颜尧妹, 「社会网络分析与可视化工具NetDraw的应用案例分析(사회네트워크분석과 시각화 도구 NetDraw의 응용 사례분석)」, 『现代教育技术』, 第18卷 第4期, 2008.

文正九·吴莲姬, 「韩中文化交流现状与展望(한중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当代韩国』, 第4期, 2001.

徐照林·朴钟恩, 「中韩文化交流与贸易对货物贸易影响的研究(한중 문화교류 및 무역이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湖北文理学院学报』, 第35卷 第6期, 2014.

郑兆岚, 「美萨德入韩的影响及对策(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한 영향과 대책)」, 『国防』, 第12期, 201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国, 限韩令, 萨德, 社会网络分析, 中国报纸
	영문	China,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THAAD, SNA, Chinese paper

A study on the network text analysis about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in Chinese papers

Ju, Min-Uk

This article interests in a dispute of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focuses on application of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Chinese attitude of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dispute. This article tried to predic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from the analysis on the issue about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disput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Chines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issu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hinese papers make frequent use of word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such as 'restriction', 'Korean wave', 'THAAD', 'entertainment' and 'tour packages to Korea' etc. It also confirmed that two countries, KOREA and CHINA which are intimately related with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were frequently appeared on Chinese paper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rticle found out that all Chinese papers have a negative opinion about the Korean wave. China is sensitive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to Sou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blicly shown no link between THAAD and the restriction of the Korean wave. However, this paper has confirmed a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욱 / 朱珉旭 / Ju, Min-Uk		
	소 속	(사)이어도연구회		
	Em@il	jjoo9993@hotmail.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31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